

안경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나에게 맞는 시력교정술 선택

건강 바로 알기 시력교정술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

근시는 물체의 상이 망막의 앞쪽에 맺히는 굴절 이상으로 가까운 곳은 잘 보이고 먼 곳은 잘 안 보이는 눈을 말하며, 물체의 상이 망막 뒤에 맺혀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 원시, 한 점에서 초점을 맺지 못할 때를 난시라고 한다.

한번 떨어진 시력은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는 대부분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통해 개선했으나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등의 시력교정술로 회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라식 수술은 각막에 얇은 절편을 만들어 쪼갠 후 드러난 각막 실질에 레이저로 조사하여 각막을 깎고 다시 절편을 덮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회복이 빠르며 통증이 적지만 20mm의 절개로 진행되다보니 각막 손상이 우려가 되며 안구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절편이 아무는 동안은 외부 충격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번 떨어진 시력 다시 회복 어려워
라식·라섹·스마일라식·스마일프로
시력·각막 두께 등 고려 시력 교정
수술 후 관리·의료진 숙련도 중요

라섹 수술은 각막상피 세포를 얇게 벗긴 뒤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각막을 깎은 후 보호 렌즈를 덮어 각막상피를 다시 재생시킨다. 각막이 얇거나 고도근시인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외부충격에도 강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3세대 시력교정술인 스마일라식은 상피제거나 절편생성을 하지 않아 수술 다음날부터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펄트세컨 레이저를 사용해 1-2mm 정도 각막을 미세 절개한 뒤 레이저를 사용해 각막 실질 교정 부위만 교정하는 방법이다. 수술 시간이 짧고 각막 손상이 크지 않아 통증이 적고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적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이 라식·라섹에 비해 수술 후 회복이 빨라 1-2일 정도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 직장인들도 주말을 이용해 수술하기에 부담이 없다.

최근 스마일라식보다 한 단계 진화한 스마일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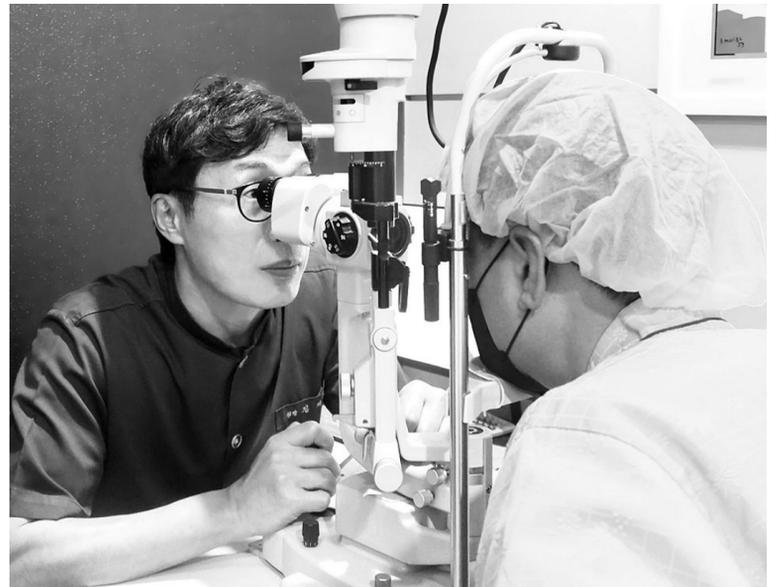
가 전 세계 6만 안 이상의 임상을 거쳐 안정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후 2023년 국내에 도입되었다.

스마일프로에 사용되는 비주맥스800 장비는 초당 200만번 레이저를 조사해 수술 시간이 단안 기준 10초 이내로 현존하는 수술 중 가장 짧아 환자의 수술 부담을 최소화했다. 수술 시간이 짧은 만큼 수술 중 석션로스과 수술 중 감염 위험성도 줄어들었다.

스마일프로의 오프라인 기능은 자동으로 난시 축을 잡아 정밀한 난시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센트럴라인 기능은 실시간으로 수술 중 눈의 움직임을 감지해 시속 중심을 잡아주어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환자가 누웠을 때 눈이 돌아가서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정할 수 있게 돼 시력의 질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그만큼 확보했다.

시력교정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안과를 선택할 때 정확한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지와 함께 의료진의 숙련도를 함께 확인해봐야 한다.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시력교정술을 선택할 때 시력 외에도 각막 두께, 통증과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 시간적인 여유와 생활, 직업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스마일라식 등과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집도의의 풍부한 경험이 중요한 만큼 스마일라식을 개발한 칼



김재봉 신세계안과 원장이 난시가 심해 시력교정을 원하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신세계안과 제공>

자이스사의 스마일라식 닥터인증증을 보유했는지, 최신 의료장비와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용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장기기증 희망 문화확산 앞장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찾아가는 캠페인'...연 4회 분기별 실시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민정준)이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장기기증 문화확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1층에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올해 첫 번째 '찾아가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상태가 됐을 때 심장, 신장, 간장, 폐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는 것이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은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총 4회에 걸쳐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분기별로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임희선 화순전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매일 평균 7.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 많은 기증 희망자가 모집될 수 있도록, 장기기증 문화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보훈복지의료공단-전남대병원

감사실 업무협약 체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상임감사 이창화)과 전남대병원(상임감사 박용현)이 최근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보훈병원 전문진료센터 3층 청렴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보훈공단을 대표해 이창화 상임감사와 감사실장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전남대병원은 박용현 상임감사와 감사실장 등 4명이 참석해 광주보훈병원 이삼용 병원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의 인화아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의 교차 감사 및 내부 감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인적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 감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감사 품질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교차감사, 감사 심의 등의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인력 상호 지원 ▲정밀한 조직문화 및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업무 수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 ▲감사관련 제도 운영현황 공유 및 활성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박용현 상임감사는 "방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보훈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 신뢰성 있는 감사로 양 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조선대병원, 태국 연수의사 수료식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왼쪽에서 두번째)은 최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태국 연수의사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한 연수의 '웨라탐모 메티니'(가운데)는 지난 3주 동안 이비인후과 최지운 교수의 지도 아래 다양한 의학 경험과 첨단 의료시스템을 습득하고 태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메티니는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 생활과 교육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며 "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과의 의료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